

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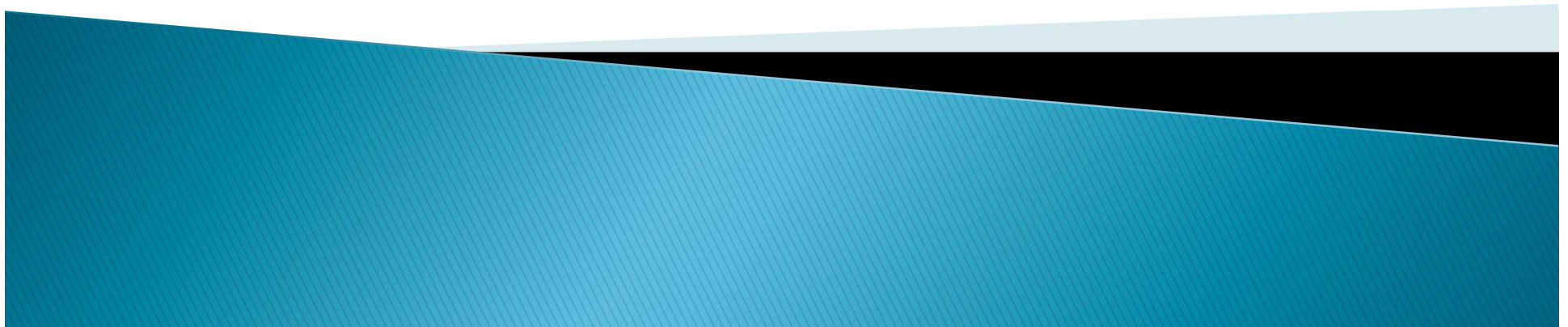
2016. 11. 30

이 주 호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
Contents

- 중국 경제 여건
- 중국 주요 산업의 전망
- 중국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
-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



1. 연구개요

연구문제

- 중국 경제의 구조적 및 정책적 변화가 한국 항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?

연구의 필요성

- 환황해권 : 대중국 수입화물에 의존하는 항만 → 중국의 경제 및 무역/물류 정책변화에 민감함 → 향후 중국의 변화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

연구의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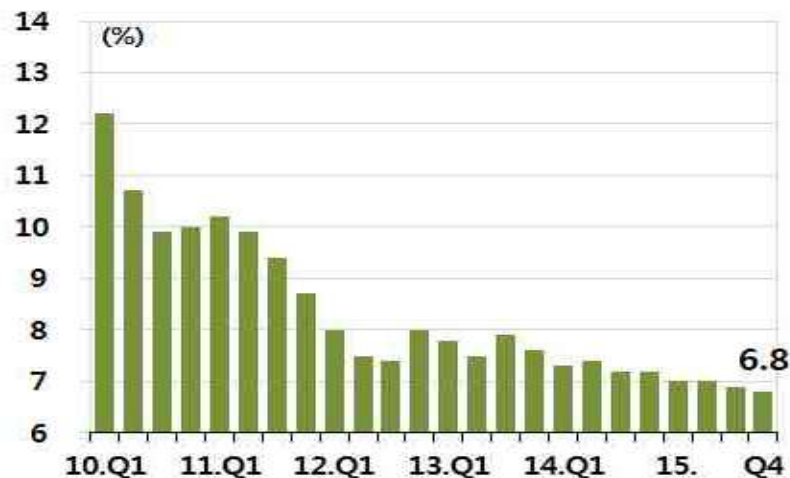
- 세계 경제의 침체 + 교역량 탄성치 감소 => 항만 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- 중국 경제성장의 변화 :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지속해왔던 고속성장 => 최근 중속 성장
- 중국 정부의 정책적 변화 : 양적 위주의 투자 및 수출 중심 => 내수 중심 정책

1. 중국의 경제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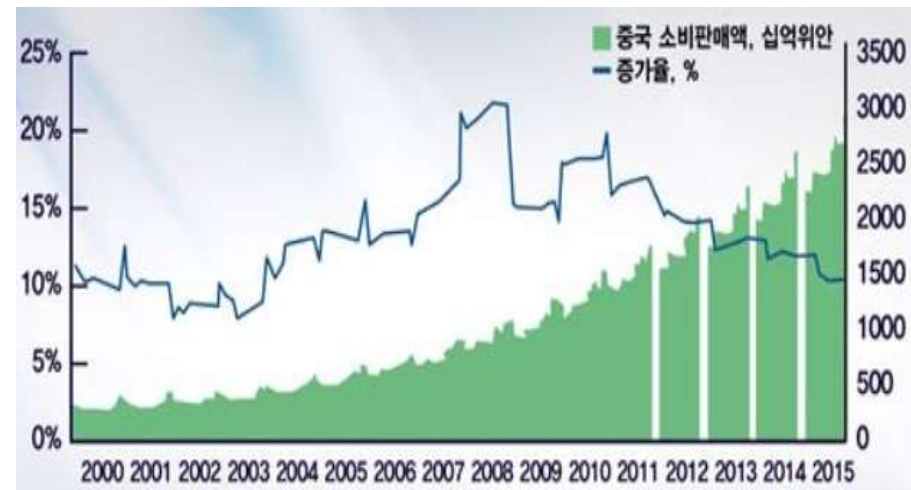
● 중국의 경기둔화 지속

- 중국의 GDP성장률은 2008년 9.6%에서 2015년 6.9% 수준으로 하락
 - 중국인민은행(PBOC)은 2016년 경제성장률을 6.8%로 전망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(IMF)은 6.6% 성장률을 전망
- 투자 · 제조업 ·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 → 소비 ·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구조로 이행

<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>



<중국 소비시장 성장률>



1. 중국의 경제여건

● 내수회복 지연

- 중국의 민간투자 부문 급격히 위축 + 소비는 10%대 성장
 - 산업별로는 부동산 부문 투자와 자동차 부문 판매가 소폭 회복
- 경제 구조상 저축 쏠림 현상으로 지연되었던 소비는 향후 서비스업 및 도시화 확대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
 - GDP 중 최종소비는 증가하나, 과다 저축 양상 지속으로 가계소비 확대가 정체
 - 향후 세제개혁, 투자확대, 서비스업 확대 등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조치가 점차 가계저축을 소비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

<주요 산업별 투자 현황>



<GDP 대비 소비·투자·저축 현황> 2016년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



구분	정책내용
세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개증(營改增) 시행(5.1부터) -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 • 정부기금 통폐합,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
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프라 투자 - 교통, 전력·에너지, 환경 등 7대 주요 업종 400개 프로젝트에 10조 위안 투입 • 민관협력 사업(PPP) 적극추진
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비스업 육성 가속 - GDP 대비 3차산업 비중: 50.5%('15년) • 도시화: 농민공 도시 편입 조건 완화

1. 중국의 경제여건

● 외수 위축 지속

- 대외 경기 악화 지속 등으로 수출 경기가 둔화, 주요국의 對 중국 수입증가율도 하락
 - 수출은 2016년 6월까지 -7.7%, 수입은 -10.2%로 2015년부터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
- 기업 형태별로는 국유보다는 외투, 사영기업 등 민간 형태 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비율 차지
- 중국 정부는 2016년 2월부터 서비스 무역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

<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현황>



<기업 형태별 수출 비중>

(비중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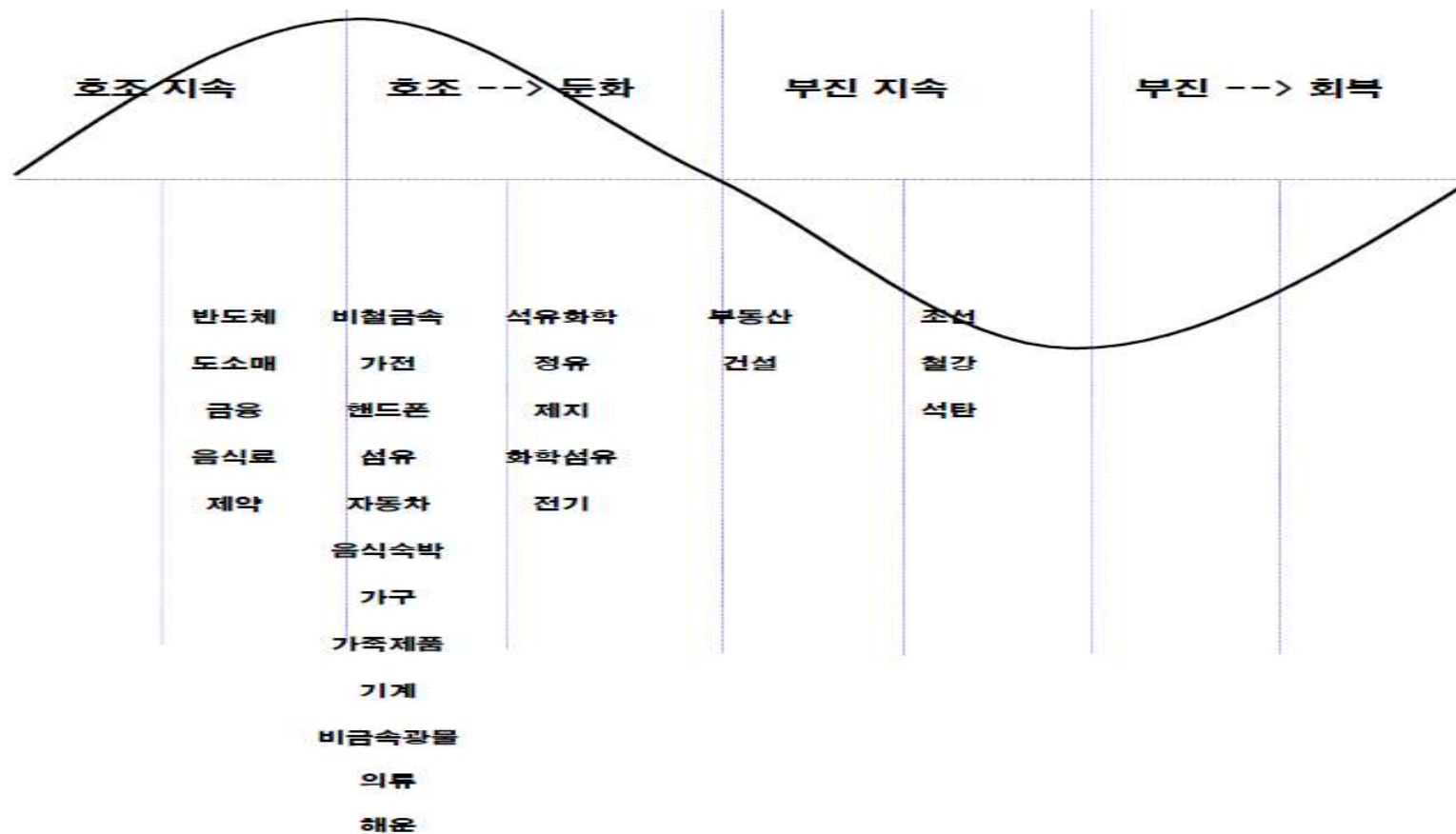
구분	2000	2005	2010	2015
국유기업	48.8	23.3	15.3	10.7
외투기업	50.1	61.2	56.4	44.2
사영기업	-	-	-	42.8

<2016년 중국의 수출 활성화>

구분	수출지원 정책
2.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비스 무역 촉진 - 상하이, 광둥, 텐진, 하이난 등 13 개성에 서비스무역특화단지 조성
5.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출 기업 지원 - 은행대출 확대 -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- 중·서부 지역 가공무역확대 지원 - 자동차, 기계, 고속열차, 항공, 선박 등 수출품 신용보증, 융자지원
6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비스 수출 지원 확대 - 對 홍콩 및 마카오 서비스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- 신규법인 행정절차 간소화

2. 주요 산업/업종 전망

● 주요 산업의 경기사이클(2015)



2. 주요 산업/업종 전망

● 호조/부진 산업의 평가 및 전망

구분	업종	평가 및 전망
호조	반도체	- 중국 정부의 지원하에,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 전망
	도소매	- 제조업의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있지만, 3차 산업은 양호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 - 도소매업이 금융업과 함께 3차 산업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	금융	- 1,2차 산업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지만, 금융업은 10% 내외의 고성장 지속 - 금융시장의 개혁 및 개방 전략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중국 금융 시장의 빠른 성장 예상
	음식료	- 소득 증가, 노령화 등으로 건강식품 및 다양한 신제품에 대한 선호 증가
	제약	- 인구 고령화와 중산층의 선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조적인 성장 예상
부진	철강	- 수요 둔화 심화로 철강 시장의 공급과잉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
	조선	- 정부 지원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형 조선사들의 난립으로 저수익 구조 지속
	건설	- 2011년 주택거래제한규제로 인해 급속도로 위축되었음 - 규제완화, 일대일로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음
	석탄	- 환경보호 압력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산업의 열세가 지속될 전망

2. 호조→둔화 산업별 전망

● 석유화학

- 제품의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이 지속되면서 산업의 수익성 훼손
 - 전세계적 경제 불황 → 석유화학제품 수요 감소 → 제품단가 인하 → 마진을 저하
 - 수요산업(건설, 가전 등)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가시적인 실적을 기대하기 힘들

● 정유

- 정제능력이 석유소비를 넘어서면서 공급과잉 지속
 - 국제 유가 급락 → 정제마진 악화 → 정유기업의 이익 총액 감소(2014년 대비 70%)

● 비철금속

- 수요둔화와 과잉생산 → 재고증가 → 가격약세로 수익성 악화
 - 비철금속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의 급격한 하락(2013, 20% → 2014, 4.1% → 2015, 0%)
 - 국가적 프로젝트(중국 제조 2025, 일대일로 등) 등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당분간 체력 저하 국면이 지속될 전망

2. 호조→둔화 산업별 전망

● 자동차

- 중국의 경기 둔화와 자동차구매제한정책 확대 실시 등으로 수요 부진 지속
 - 과거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경제발전에 따른 1인당 국민소득 증가, 정부의 자동차 구매지원 정책 등으로 폭발적인 성장세 유지
 - 하지만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수요 감소
 - 환경보호와 교통 체증 완화 차원에서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구매제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수요부진 발생

● 가전/핸드폰

- 가전제품의 경우 중국 업체들의 위상이 급부상하면서 대중국 수입 축소
 -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잠재수요가 풍부
- 핸드폰 보급률이 포화 상태로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
 - 2014년 대비 생산량이 6.8% 증가 → 핸드폰 사용자 5억 명에 육박
 - 보급률이 90%를 넘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

3. 중국 경제의 파급효과

● 중국 경제불안의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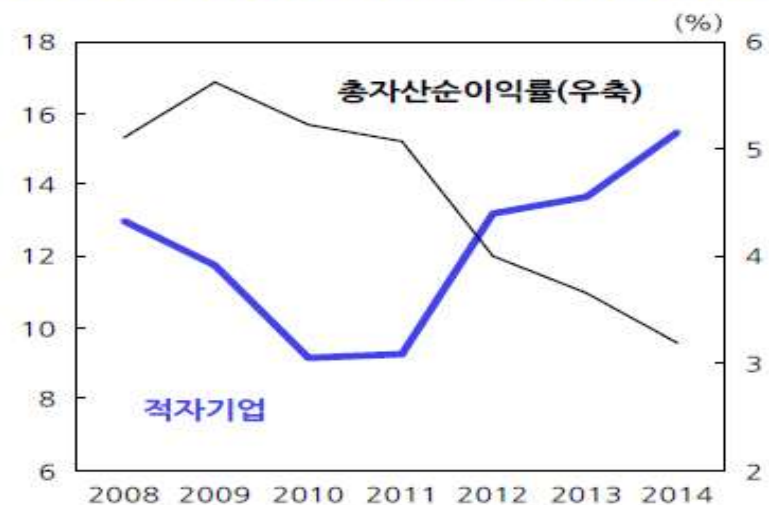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시된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 →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 급락 우려
- 세계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실제 총수요는 잠재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→ 기업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과잉투자의 부작용 심화

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제성장률



자료: IMF; 블룸버그.

중국의 적자기업 비중과 총자산순이익률



3. 중국 경제의 파급효과

● 중국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 경제(KDI)

-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→ 대중국 수출 둔화 → 직접투자 기업의 수익성 악화 →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
-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→ 아시아 신흥국 및 자원수출국, 선진국 전반의 회복세 악화 →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
-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(1%p) →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둔화(0.2~0.6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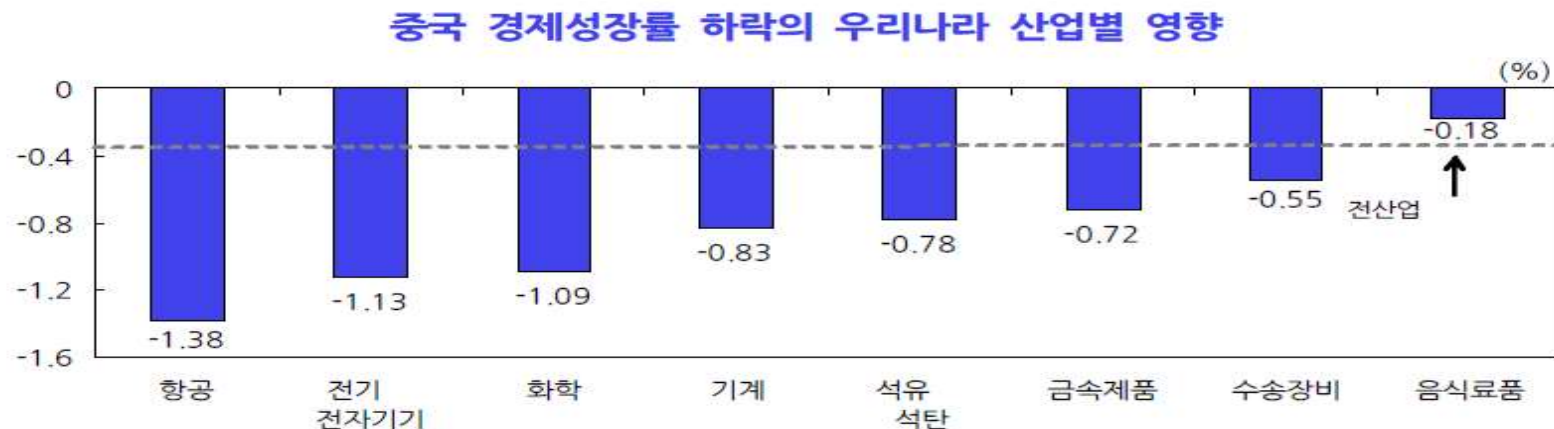
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

시나리오(각 지역 경제성장률 하락폭)	(%p)				
	GDP	민간소비	총투자	CPI	경상수지 (GDP 대비)
중국 1.0%p 및 중국 외 0.0%p	-0.21	-0.06	-0.12	-0.02	-0.16
중국 1.0%p 및 중국 외 0.2%p	-0.37	-0.11	-0.21	-0.04	-0.29
중국 1.0%p 및 중국 외 0.5%p	-0.62	-0.18	-0.35	-0.07	-0.49

3. 중국 경제의 파급효과

● 중국 경제와 주요 산업별 파급효과

- 항공, 전기 및 전자기기, 화학 등의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침
- 음식료품 등 소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



가정 : 중국 1%p 및 중국 외 0.2%p 하락

- 향후 중국의 투자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물동량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
- 석유, 석탄 및 화학, 금속, 건설 및 기계산업에 구조조정이 집중될 경우 우리나라에 경제 및 항만 물동량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사료됨

4. 중국 산업구조 변화

●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

- 12.5기간 동안 중국은 국내외 시장 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핵심 경쟁력과 제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산업 구조조정 실시
 - 2013년 1월 중국 정부는 공업 업그레이드 계획 발표를 통해 ‘중점 업종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’ 발표
 - 자동차, 철강, 시멘트, 선박 등 9개 업종을 위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중임
 - 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우리나라 기업과의 연관성이 높음
- 일부 산업의 경우 공급과잉 심화로 자발적인 구조조정 진행
 - 석유화학, 섬유 등의 산업은 무리한 생산능력 확대와 수요 부진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됨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
 -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퇴출 또는 업체 간 통폐합 형태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임

4. 중국 산업구조 변화

● 소비 확대 및 투자 축소

-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→ 1인당 소득증가 → 소비시장 확대(연평균 9.2% 증가)
- 소비지출 중 식비와 같은 지출은 감소, 반면 통신, 교육, 레저용품과 같은 선택적 소비재 지출 비중 증가
- World Bank : 중국 GDP 대비 소비비중은 2020년까지 60% 증가, 반면 투자 비중은 38% 하락 예상

● 산업구조 고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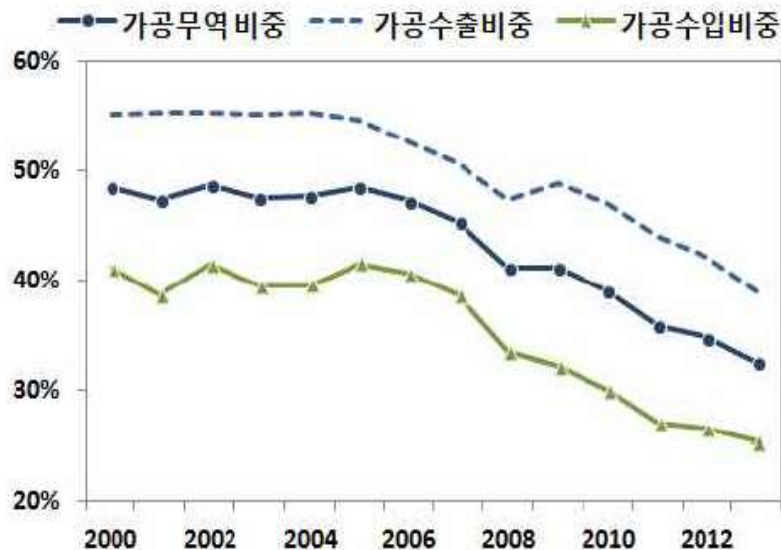
- 제조업 중 자본/기술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
- 2015년 10대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<중국제조 2025>계획 발표
 - 10대 핵심산업 : 차세대 정보기술, 로봇산업, 항공우주장비,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선박, 선진 궤도교통설비,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, 전력소비, 농업기계장비, 신소재,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

4. 중국 산업구조 변화

● 가공무역 축소 및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

- 산업구조의 고도화 → 중국 수출을 견인하던 가공무역의 비중 감소
 - 2012년 기준 총 교역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이 30% 수준으로 감소
 - 가공단계별 재화의 수입 비중 : 중간재 → 급격히 감소 / 소비재 → 지속적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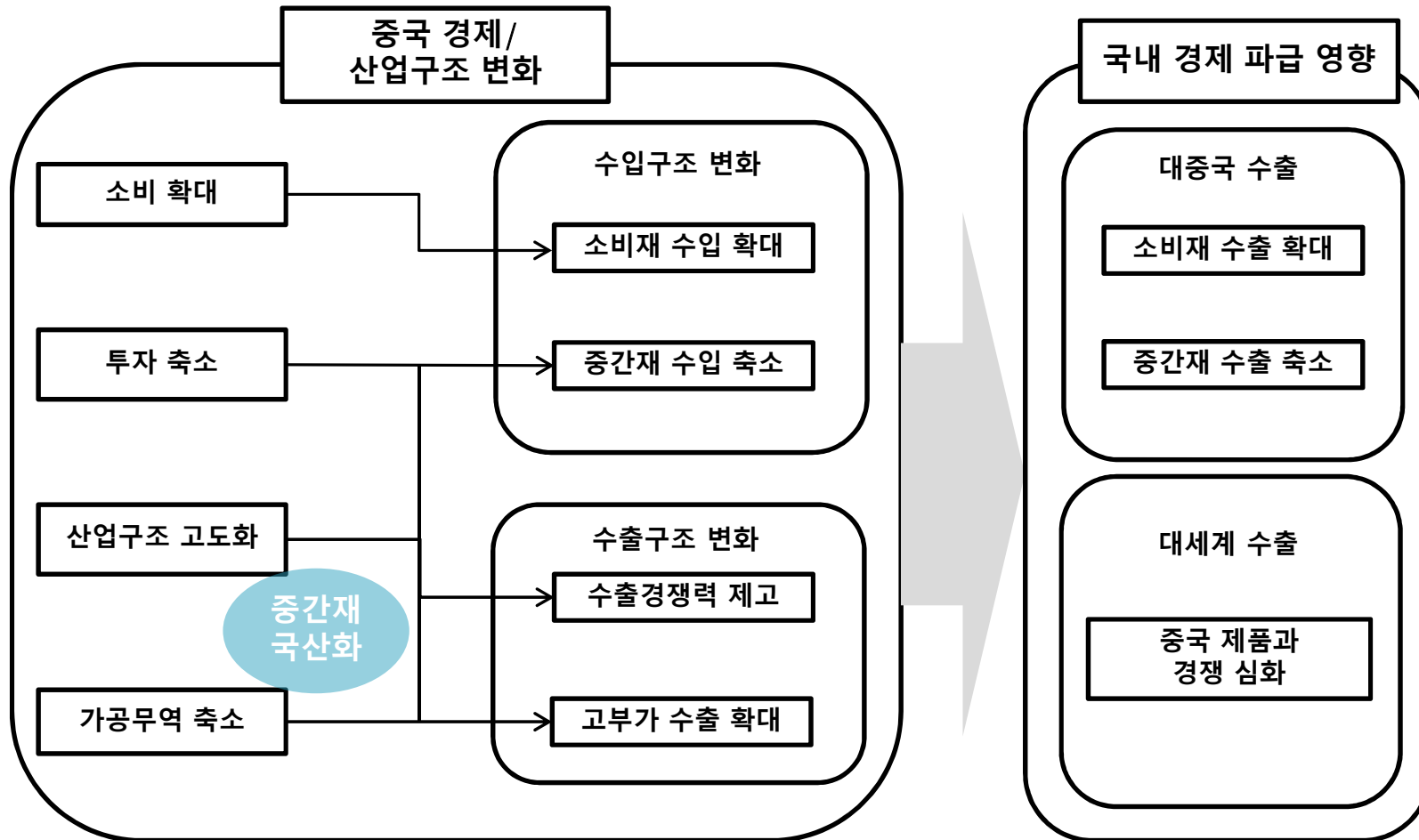
<중국 가공무역 / 총무역 비중 추이>



<중국 가공단계별 수입 / 총수입 비중>



4. 중국 산업구조 변화와 국내 경제 파급효과



4. 중국 산업구조 변화와 국내 경제 파급효과

● 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증대 예상

- 중국 = 세계 1위 인구 보유 +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 = 세계의 공장 → 세계의 소비대국
- 2014년 중국 소비재 수입액 : 1,566억 달러(2010년에 비해 2배 증가)
- 중국의 주요 소비계층 : 빠링호우(80년 이후 출생자, 2.2억명), 지우링호우(90년 이후 출생자, 1.7억명)
- 절약과 저축 → 자기 만족과 삶의 질 추구
- 의류/패션, 화장품, 고화질 TV등 비필수 소비재와 웰빙 식음료에 대한 수요 급증

BUT

- 우리나라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비중은 2.5% → 3.6%(2003~2014) 낮은 증가세
→ 중국의 경제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

4. 중국 산업구조 변화와 국내 경제 파급효과

●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예상

- 중국 성장세 둔화에 따른 대중 수출 부진 + 중국의 수출 경쟁력 제고 = 우리나라 대중 수출 경쟁력 악화
- 우리나라의 주요국 수출 성장세는 회복되고 있으나 대중 수출 부진은 지속
- 대중 수출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



- 교역 구조 변화 → 대중 중간재 수출 실적 둔화
- 대중 수출경쟁력 지수는 소폭 개선, 하지만 섬유 및 화학 등 소재 분야는 악화
- 중간재의 경우 중국의 수요 축소에 따라 성장세 둔화

4. 중국 산업구조 변화와 국내 경제 파급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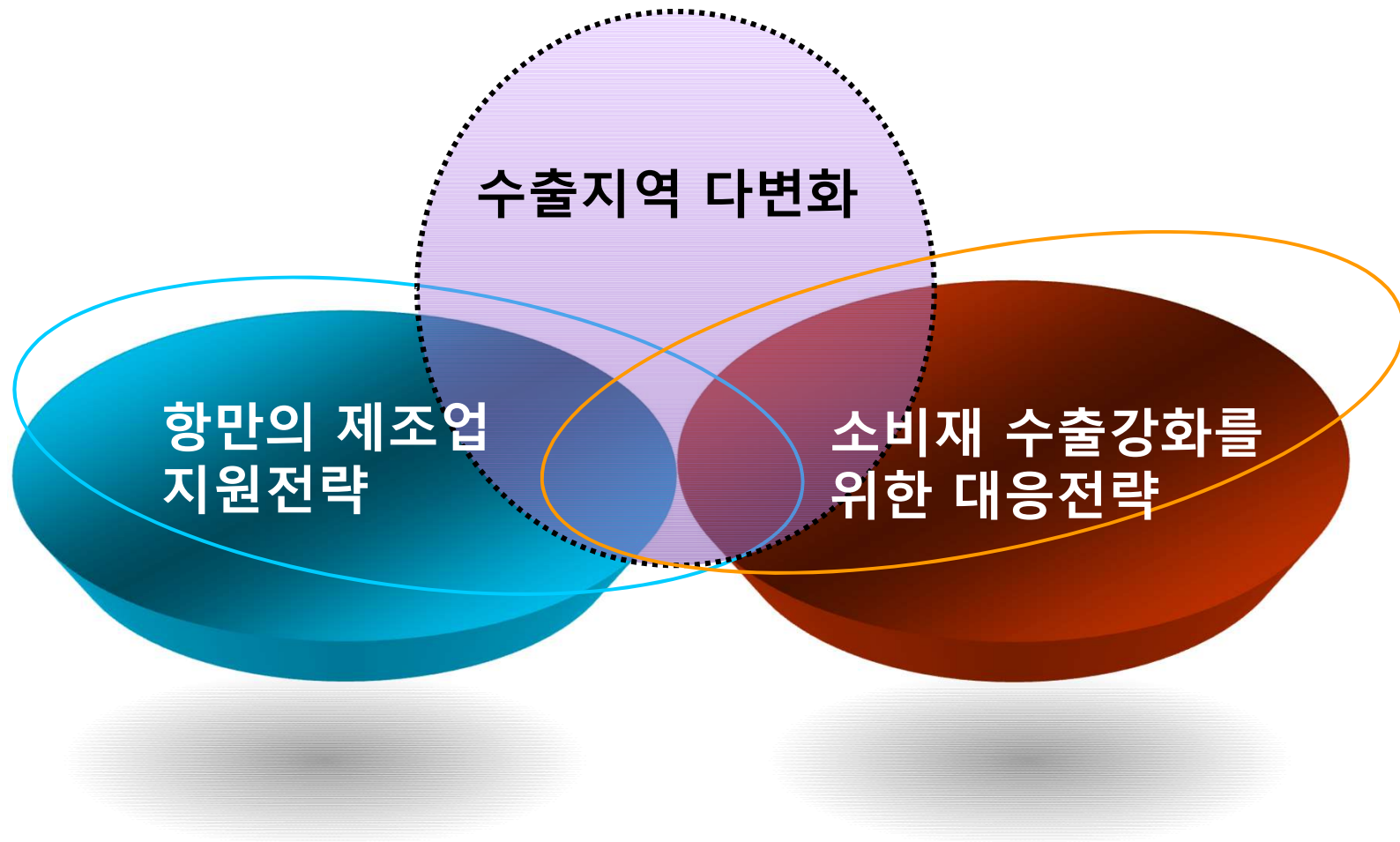
● 중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 예상

- 디스플레이, 전기가전, 자동차 부품 등 일부 산업의 기술격차 축소 → 세계 시장 점유율 하락 예상
- 중국 내수 및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의 경쟁 또한 치열한 상황
- 최근 10년 간 철강, 조선, 정유 등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거나 역전 된 것으로 파악(전경련)



- 중국 제품의 경쟁력 제고 → 대세계 수출 경합도 상승 → 우리나라와 중국 간 수출 경쟁 심화
- 중국의 수출구조가 우리나라와 유사해지면서 제조업의 수출 경합도 상승
-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의 경쟁심화
- 경공업 뿐만 아니라 IT, 정밀기기, 기계, 철강 등 중국의 경쟁력 제고로 인해 우리나라 대중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

5. 대응방안



5. 대응방안 - 신 항로 개척을 위한 제언

● 동남아시아 항로의 개발 주력

- 인천/평택항 - 동남아시아 신항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
 - 인천 : IA6노선(중국-필리핀-베트남-태국)과 NSB노선(일본-대만-말레이시아 등) 등 교역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항로 확대 주력
 - 평택 : 베트남(하이퐁, 2016.4 / 호치민, 2016.8)으로 신규 항로 개발
-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황해권 항만의 동남아시아 신규 항로 개발을 위한 마케팅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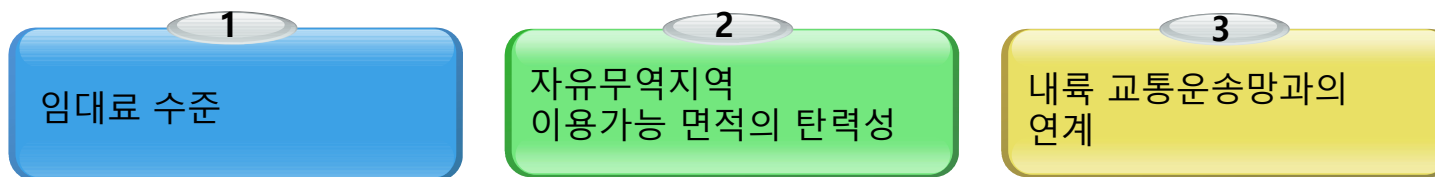
● 중앙아시아(이란 등)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 모색

- 2016년 5월 한/이란 해운협정 및 항만 개발에 대한 MOU 체결
 - 우리나라는 민관 합동으로 <이란 교역/투자지원센터>를 개소하였으며,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
 - 향후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인천/평택-이란 물류 운송루트 개설을 위한 다양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5. 대응방안 – 제조업 지원 방안

● 제조업체들의 요구사항과 반영

▪ 국내 제조업체들의 요구사항 조사결과(2015)



▪ 임대료 수준의 정비

-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예외, 하지만 국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전무
 - 항만 지역은 국가간 경쟁을 담당하는 곳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제조업 육성 차원에서 항만구역을 규제지역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검토
 - 시설투자 및 영업 초기단계를 간주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 차등 부과 : 사업개시 후 3년간 25% 수준, 5년까지 50% 수준, 이후 정상 임대료 부과(네덜란드 사례)

5. 대응방안 – 제조업 지원 방안

● 제조업체들의 요구사항과 반영(계속)

▪ 자유무역지역 이용 면적의 탄력적 운영

-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지역과 배후단지에 임대면적이 지정되어 입주기업 공모
- 또한 신청 면적이 공모 당시 정해져 있음

→ 부지제공 면적에 대한 하한과 상한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면적 만큼 임대하는 방식을 사용 ⇒ 기업 유치의 활성화(네덜란드 사례)

▪ 내륙 연계운송망의 조속한 개발 추진

- 항만 인근 국도와 고속도로는 화물 교통량 증가로 인해 상습 정체구간이 발생하고 있음
- 원활한 배후수송망 구축을 위해 도로 확장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

5. 대응방안 – 소비재 수출 지원을 위한 항만전략 수립

● 소비재 관련 전시 판매시설 개발

- 항만 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에 K-뷰티, K-패션, K-푸드 등을 연계한 대규모 한류 박람회를 개최하여 바이어 및 고객들이 상품을 직접 관람하고 즉시 구입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항만을 통해 수출 할 수 있도록 제공



● 유망 소비재 제조기업 우선지원

- 유망 소비재 제조기업에 대하여 항만 배후단지 내 물류센터 임대료를 인하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

● 배송시간 단축

- 화장품, 전자제품 등의 인기 소비재 상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항만 배후단지 내 보세창고 활용을 지원하고,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여 효율적인 물품 반출을 통한 수출 원활화를 기대 하며, 이로 인하여 항만 물동량 증가 기대

감사합니다 !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